

유적지 순례 63-1

# 入江祖諱迪과葆眞堂諱士鈞

입강조 휘 적 직 보진당 휘 사군



보진당(강릉시 옥천동도 문화재자료 6호)

강릉 입항조인 19세 현령공 적(迪)은 북야공과 윤보(允保)계로서 서주공(瑞州公) 시중(時中) 제 5차 의 증손이다. 조부는 문과 관관으로 통례원좌통례로 추증되었다. 대사성공(大司成公) 휘 종(宗)은 현령공의 선고이며 태종 1년에 출생하여 평해읍지에 대대로 갑방(甲榜)에 급제한 명족(名族)으로 사마시 성관관 태학생이 되고 총의교위(忠毅校尉) 사직(司直)에 올랐다. 과거에 장원하여 대사성(大司成)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입강조 19세 현령공 적 묘소(강릉시 저동 간촌)



현령공재사(강릉시 저동 경포호 서쪽 간촌)



입강조 현령공 묘소입구 표지석

숙부 함(恒)은 세종 5년 사마시 생원이 되고 세종 23년 식년시 문과 정과에 급제하여 영천군수를 지내고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추증되었으며 좌익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현령공(縣令公) 적(迪)은 성종 8년 진사가 되고 음직으로 현령에 이르렀으며 평해(平海)에서 거주하다가 강릉부 동쪽 옥가로 이주하여 옥가파(玉街派)의 입항조가 되었다. 공은 조부 관관공 심(深)이 강릉부에 재직하면서 이거할 뜻으로 이주하다가 처량인 평해에서 살았는데 공이 조부의 뜻을 이루었다. 흡후 예빈시정(禮賓寺正)으로 추증되었고 강릉읍지인 임영지(臨瀛誌)와 여지승람에 사적이 올랐으며 젊어서 문헌(文翰)이 떨치고 이왕(二王-왕희지, 왕현지)의 필법을 배워 화법이 매우 굳세고 힘차 비문을 쓴 것이 많다고 하였다. 묘소는 강릉시 저동 경포호 서쪽 간촌에 있으며 14대손 덕현(德顯)이 비문을 찬하였다. 공이 지은 시에 김극기(金克己)가 차운한 것으로 보이는 대관령(大關嶺) 시에 何人解賦蜀道難(하인해부축도난)李白去後權夫子(이백거후권부자) [그 누가 촉나라 가는 길 험하다고 했던가. 이백이 간 후에는 권부자가 아남는지] 김극기가 공을 찬양한 본 뜻의 기록은 없지만 문헌이 펼쳐 이왕(二王)의 필법을 배운 점으로 보아 당대에 공을 따를 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법이 굳세다고 하였는데 유묵이 없어 아쉽지만 공의 진부관

(珍富館)이란 오언을시를 소개한다. '古驛名珍富 名珍富意何 雪堆山玉滿 柳拂路金多 溪鏡跳紅錦 村煙散碧羅 眼前雙戶長 銀鬚鬢毛華' 옛 역을 진부라 이름했으니, 그 이름 속 뜻이 무엇이더냐, 눈내리면 온산 옥이 가득 쌓이고, 버들이 스치니 길가엔 금이 쏟아져, 시냇물 잉어는 비단이 뛰는 듯, 마을에 피는 연기 푸른 비단 훑날리듯, 눈앞에 서있는 두 호장마져 은실같은 귀밑 털을 훑날리네'

아들은 사군(士鈞), 진사 대균(大鈞), 충순위(忠順衛) 만균(萬鈞)을 두었으며 만균의 아들 승형(承衡)은 선조 18년 식년시 문과 병과로 급제하여 병조좌랑 등을 지냈다. 20세 보진당(葆眞堂) 사군(士鈞)은 성종 15년 강릉에서 출생하여 성품이 화락(和樂), 단아(端雅)하였으며 효우(孝友)가 극진하고 벗에게 성실하였다. 중종 2년 생원(生員), 진사(進士) 양시에 합격하여 성관관에 들어가 문장과 덕행이

뛰어나 사람(士林)의 추중(推重)된 바 있으나 정변을 만나 많은 사람들이 화란(禍亂)을 당하니 개탄하고 귀향하여 강릉향교(江陵鄉校)의 교수가 되고 도화에 힘쓰며 강릉시 옥천동에 보진당(葆眞堂)을 세우고 명사들과 교류하니 주세붕(周世鵬) 정사룡(鄭士龍) 신광한(申光漢) 박광우(朴光祐) 구수담(具壽潭) 등과 시문으로 찬화(唱和) 하면서 후학을 길렀다.

만년에 풍질로 고생하다 명종 15년 졸하니 향년 77세였다. 선조조에 덕행으로 추서되어 통정대부 호조참의(戶曹參議)로 추증되었다. 부제학 채광윤이 지은 보진당도가 영주목(靈州牧)에 실려있고 생전에 심은 두 그루의 은행나무에 대해 9대손 필교(弼敎)가 쌍행서(雙杏書)를 지었으며 현재도 한 그루가 보진당 앞뜰에 10m 높이 자라고 있다. 보진당은 건립 년대는 1520년경으로 임난(壬亂)과 호란(胡亂)에도 훼손되지 않았으나 설중고사(雪中高士)가 기거하는 해상고가(海上古家)라 일컬었다. 보진당기에는 "강릉부 동문 밖에 있으며 호조참의에 증직된 권사군이 스스로 본성을 보존하고 참되게 기르다는 뜻으로 집에 현관을 걸었다. 사서와 사기를

두루 읽고 신재 주세붕과 구수담, 필재 박광우의 시가 남아있다. 후손 칭(稱)이 오가(五架)를 증설하였으며 세규(世規)가 동당록(同堂錄)을 비치하였다. 고종 정미년(1867년) 화재로 피해를 입었는데 병자년(1878년) 중건하였다."라 하였다. 강원도 문화재자료 6호로 지정되었다. 보진당은 공의 호(號)로서 이곳은 후학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진사와 대과에 합격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시켰으니 이 고장 사학의 효시라 한다. 보진당이란 본성(本性)을 보존하고 진리(真理)를 탐구한다는 뜻이다.

묘소는 강릉시 성산면 안국산(安國山) 상록에 숙부인 강릉김씨와 재취 정선전씨와 삼합부이며 이경림(李景臨)이 묘지를 지었다.

사군은 개(槩)와 참봉 계(槩) 두아들을 두었다. 참판공(參判公) 개(槩)는 중종 8년에 출생하여 부친이 풍질(風疾)로 18년간 와병하자 상분도천(嘗冀壽夭)인분을 맞보고 하늘에 기도함)하였으며 졸하니 여묘를 하였다. 명종 11년 칠봉(七峰) 등과 함께 구산의 서오봉 아래 공자의 진상을 모신 구산서원(丘山書院)을 창건하였다. 선조 19년 졸하니 향년 74세였으며 효성과 화행으로 가선대부 호조참판(戶曹參判)겸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안국산 선고묘 아래 합부이며 교리 이오(李璣)가 묘지를 지었다.

개는 신(愼), 협(協), 필(楨), 통정대부 순(尙), 통덕랑 유(楡), 혼(衍) 여섯 아들을 두었다.

22세 장자 동지공(同知公) 신(愼)은 중종 29년 강릉에서 출생하여 관동의 병화(兵禍)로 강릉으로 모여드는 기아자를 구휼하여 5년동안 수만명을 구제하니 행의로 추천되어 7품관에 제수되었으나 사의하였으며 임난에도 고향을 열어 군량을 보내니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제수되고 임난 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었다. 중년에 용추(龍秋)에 퇴관장을 짓고 율곡과 술을 대작하니 그 바위를 취선암(醉仙岩)이라 하였다. 만년에는 양양에서 자적하니 세간에 삼달존(三達尊)에 이르렀다 하였으며 광해군 4년에 졸하니 향년 79세였다. 묘소는 안국산 중록에 합평하고 하곡 허봉(許翁)이 찬하였다.

2차 학동공(鶴洞公) 협(楨)은 중종 34년에 강릉에서 출생하였다. 도량이 관대하고 장성하여 무예를 닦아 부장이 되었으나 곧 사임하고 44세에 경포호 남쪽에 환선정(喚仙亭)을 짓고 율곡 이이, 삼암 김효원, 정약 등 명류들과 교유하였다. 이때 여씨향약(呂氏鄉約)을 모방하여 향령(鄕令)을 제정하니 향인이 약정(約正)으로 추대하였다. 임진왜란에 기민을 구휼하고 군량을 조달하여 선조 31년 통정대부에 오르고 이어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었다. 선조 37년에 68세로 졸하니 묘소는 안국산 상 참판공 좌쪽에 장사하였으며 방손 권용직(權用職)이 비문을 지었다. 환성정은 경포호 동남쪽 송림에 자리잡고 경포호를 바라다 보는 풍광이 빼어난 곳이다. 부사 정경세(鄭經世)가 시를 지어 이르기를 "그림같은 환선정이 구름 밖에 솟았으니 봉래산 신선들을 불러도 되겠구나. 밤 늦도록 술 마시고 촛불을 물리고 나니 휘영청 밝은 달이 호수에 넘실대네."

안국산록에는 보진당부서 삼대묘와 5대 및 8대손의 묘소가 있으니 이곳을 안동권씨세장동(世藏洞)이라 이름하고 있다. <감수 대사성공중회 옥송 우석, 글 시진 현봉 경석>



보진당 묘역 정화 기념비



20세 보진당 사군 묘소(강릉시 성산면 안국산 상록)



21세 참판공 개묘소(안국산 선고묘 아래)



22세 동지공 신 묘소(강릉 안국산 중록)



22세 학동공 협 묘소(안국산 상록 참판공 좌쪽)